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9월 26일 강의 계획서

주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천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르 9,2-7)

1. 거룩한 변모 사건이 일어난 장소

- (1) 타보르 산인가? 헤르몬 산인가?
- (2) 현성용이 일어난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2. 거룩한 변모 사건의 네 장면들

(1)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됨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당신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그 옷이 하얗게 번쩍었다."(루카 9,29; 마태 17,3)

(2)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①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기에

- 예수님은 성서(구약성서)를 완성하시는 분
- 예수님은 승천하실 분

②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 주제는?

엑소도스(ἐξοδος) = 엑스(ἐξ, '에서') + 호도스(ὁδος, '길')

※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란 용어 : 시노드스(synodus)

(3) 베드로의 엉뚱한 제안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

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마르 9,5-6)

(4)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마르 9,7)

- 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 ②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인가?
- ③ 초막 세 개와 관련된 베드로의 세 가지 실수

3. 우리의 신앙 삶을 위한 적용

- (1) 높은 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 (2) 세상 한복판에서 이뤄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서

A. 제자들의 두 번째 위입서궁(蝸入鼠宮)의 모습

0. 위입서궁(蝸入鼠宮)이란:

1. 제자들의 위입서궁(蝸入鼠宮)의 모습

그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래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다시금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집에 당도하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잠차고

있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마르 9,30-34 직역)

(1) “그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래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의 장소 이동>

- 9장 30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래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
- 10장 1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 10장 32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 10장 46절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리코 도착.
-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 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 11장 11절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2) 두 번째 수난과 부활 예고

(3) “그들은 다시금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집에 당도하자”

- ① 카파르나움: 제자직 양성의 못자리판
- ② 쇠신의 특징

(4)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5) “그러나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2. 제자직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마르 9,35-37)

(1)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2)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 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아이의 위치

② 나아르(ἄνω)/파이디온(παῖδιον) : 어린아이; 종

(3)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껴안으시며”

<어린아이를 주제로 한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

“하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 19,14)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마르 10,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태 18,3)

- ▲ 왜 어린이처럼 되어야 하는가? 왜 동심을 보존해야 하는가?
- ▲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 ▲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생에서 기쁨과 경이를 찾아 나서라는 것

B. 제자들이 세 번째로 보이는 위입서궁(蟬入鼠宮)의 모습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칩 베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마르 10,32-34)

1. 야고보와 요한이 보인 위입서궁(蟬入鼠宮)의 모습

(1) 예수님의 세 번째 수난과 부활예고

- ① 예수님의 세 번째 예고가 주는 극적(劇的)인 면
- ② 예수님의 세 번째 예고가 주는 구체적인 면
- ③ 예수님의 운명은 곧 제자들의 운명

(2) 야고보와 요한의 위임서공의 모습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마르 10,35-37)

- ① 야고보와 요한의 완곡한 그러나 강제적인 청
- ②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
- ③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의 영예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감정

(3) 복음서들 안에서 삼 단계에 걸쳐 부정적으로 묘사된 12 제자들의 모습

- 첫째 단계(마르 1,16-8,26): 12제자들의 우둔함이 강조된 단계
- 둘째 단계(마르 8,27-14,9): 12제자들의 몰이해(沒理解)가 강조된 단계
- 셋째 단계(마르 14,50.66-72):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단계

(4) 복음서들 안에서 12제자들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이유

- ① 12제자들의 실제 모습이었기에
- ② 우리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 ③ 십자가의 신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고자

2. 야고보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

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마르 10,38-40)

- (1) “내가 마시는 잔” : 고통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사 51,17)
- (2) “내가 받는 세례” : 수난과 죽음의 비유적 표현(시편 42,7)
- (3)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마르 10,41)

3. 열두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르 10,42-44)

- (1) 위대함(높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
- (2) 세상이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 (3)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가?
- (4) ‘종’이란 단어에 대한 오해
- (5) 교회 직분에 대한 오해

“심지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5)

- (1) “심지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 (2) “많은 이들”의 의미
- (3) 몸값/속전/속량/대속물: 뉘트론(λύτρον)

나가는 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의 삶에 대한 성찰

어떻게 자신의 달란트/은사를 파악할 수 있는가?

<개인적 차원에서 알아보는 자신의 달란트/은사>

- ㉠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헤아려보아야
- ㉡ 자신의 가장 탁월한 장점 다섯 개 발견하기: www.viasurvey.org
- ㉢ 자신의 상처를 봉사의 통로로 사용할 수가

<공동체 차원에서 알아보는 자신의 달란트/은사>

- ㉠ 본당 내 봉사 단체에서 맛보기 봉사를 해보아야
- ㉡ 맛보기 봉사 다음에 해야 될 질문들
 - 봉사했던 일에서 의미를 느끼는가?
 - 봉사를 한 다음에 기쁨이 있는가? 원기가 충전되는가?
 -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가?
 - 자신의 일정과 맞는가?